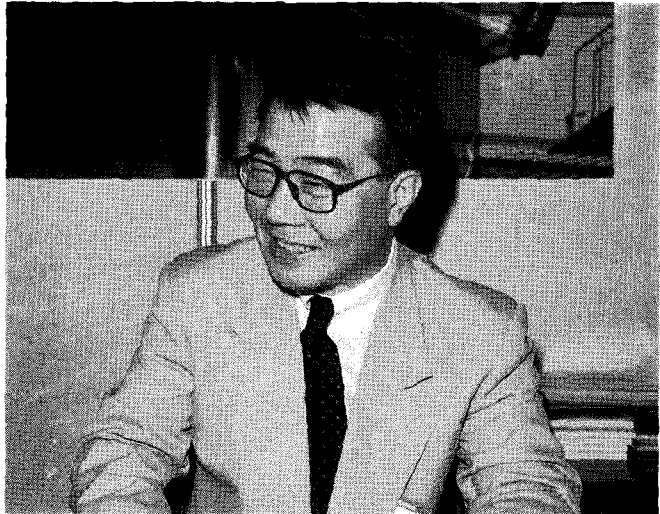


플판지 이미지 효과에 주력할 터 첨단 시설만이 완벽한 제품 생산

박영환 / 장천 상무

“중 이포장세계의 장을 열어나가는 장천은 일반 공산품 및 농산품의 신선도 유지에 가장 적합한 포장재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 CLB(Coated Liner Board), TLB(Tinted Liner Board) 라는 칼라코팅지 개발에 성공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장재를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장천 박영환 상무

패션골판지 생산에 일익을 담당해온 장천의 박영환 상무는 골판지의 역사가 100년도 넘지만 색상의 변화는 없었다며 이제는 상품에 맞는 색상을 골판지에도 부여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디자인의 시대' 라고 예견한다.

패션골판지의 개발동기에 대해 그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가전제품을 볼때 한정된 종이색상-원색, 황색, 백색-으로 상품이 포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호전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은 화려한(밝은) 색상을 선호합니다. 특히 파스텔톤 계통은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 선호도가 높습니다. 몇년전부터 일본이나 대만은 상품(내용물)의 색상과 동일한 색으로 골판지를 인쇄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골

인쇄란 정성을 다하는 망점,
그에따른 정밀함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고 밝히는 그는
인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첨단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판지에 포장할때 골판지의 색상을 녹색계통으로 인쇄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컬러골판지상자의 소재인 컬러골판지는 골판지 원지의 표면 색상조절에 따라 여러가지 색깔을 낼 수 있어 내용물의 종류, 제조업체 생산지역에 따라 색상이 다른 골판지상자의 제작이 가능하고, 옵셋인쇄, 합지, 다이커팅, 2장합스태칭 등 여러가지 공정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미장골판지와는 달리 일반 골판지와 유사한 공정으로 강도 또한 뛰어난 고품질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어 원가절감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조일제지에서 근무하다 지난 87년 지금의 일터인 장천으로 자리를 옮겨 신상품 개발과 매출신장에 맘을 쏟고 있는 박 상무는 제지분야와 골판지분야를 섭렵한 포장인이다. 그래서인지 제지산업과 골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그는 쌍방간의 이해를 강조한다. 제지면 제지, 골판지면 골판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업종단위별로, 혹은 수요자 단체들이 모여 서서히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 그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보면 15kg 상자에 내용물이 포장돼 있습니다. 그것이 상자를 포함

해 15kg이라는게 문제입니다. 가령 감귤같은 경우 농협에서 출하되는 것은 네트로 15kg이지만 상인들 손을 거치면 그로스로 15kg입니다. 소비자들은 모르고 구매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관련단체나 조합이 공동으로 제기를 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라고 강조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 상무는 “인쇄란 정성을 다하는 망점, 그에 따른 정밀함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고 봅니다. 장천 나름대로의 고유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켜 종이포장재의 고급화와 인쇄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장천도 관계사와 해외공동진출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수요안에서 물량을 늘리면 과당 경쟁 밖에 안됩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첨단 기술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만이 우리 포장산업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라고 밝힌다.

항상 ‘예의 염치’를 마음 속에 두며 생활하고 있는 박 상무는 장천이 발전하는 것이 곧 자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웃음으로 건넨다. ☐

변준섭 기자